

2015.06.15.MON

Beads And Splash

베르사유의 구슬

베르사유 궁전의 가장 힘센 주인이었던 루이 14세가 아끼던 장소 '물의 극장'이 다시 태어났다. 금빛 구슬들이 물방울을 튕기며 춤추는 비밀의 정원을 장 미셸 오토니엘과 함께 산책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물의 극장(Water Theatre Grove)'이 문을 열었다. 대중에게 처음 공개되는 이곳은 태양왕 루이 14세가 생전에 특별히 아꼈다고 전해지나 안타깝게도 1775년에 파괴된 장소. 2009년 베르사유 궁전은 오랫동안 닫혀 있던 이곳에 새로운 분수 정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의 유명한 조경사 루이스 베네시(Louis Benech)가 정원과 분수를 디자인하는 역할을 맡았고, 형형색색의 유리 구슬 작업으로 유명한 장 미셸 오토니엘(Jean-Michel Othoniel)이 분수에 어울리는 설치미술을 선보일 아티스트로 낙점됐다. 오랜 사료 조사와 여러 전문가들의 조심스런 협업으로 다시 태어난 정원은 그야말로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이탈리아 무라노 섬의 장인들이 하나하나 입으로 불어서 만든 금색 유리 볼들이 춤추듯 세 개의 분수 위를 장식하고 있다. 반짝이는 구슬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와 수면 위에 퍼지는 금빛 물결이 마치 3D 영상처럼 환상적인 장관을 연출한다. '아름다운 춤(Les Belles Danses)'이라는 이름이 붙은 오토니엘의 설치미술 작품은 앞으로 베르사유 궁전의 역사와 함께 숨쉬게 된다. 베르사유 궁전 정원에 새로운 아티스트의 작품이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3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아

티스트 본인에게도 영광스러운 이력이 아닐 수 없다. **5월 11일** 정식 오픈을 앞둔 정원에서 오토 니엘을 만나 전설이 될지 모를 작품의 탄생기를 청했다.

장 미셸 오토니엘의 대표 작업들.



베르사유 궁전이 공개한 '물의 극장' 내 분수에 설치된 장 미셸 오토니엘의 작품.



2012년 뉴욕 브루클린 미술관에서 열린 회고전 <My Way>.

©Jean-Michel Othoniel/Adapp, Paris 2015



파리 루브르 박물관 지하철 역 입구를 장식한 'Le Kiosque des Noctambules', 2000.



도쿄 롯폰기 힐스에 있는 모리 정원에 영구 설치된 'Kin No Kokoro', 2014.



2013년 파리의 갤러리 페로탕에서 열린 개인전 <Les Noeuds de Babel>.



5월 11일 오프닝 행사로 진행된 미국의 유명 댄서 릴 벅과 LA. 댄스 프로젝트의 합동 공연.

준비 기간이 길었다던데, 완성된 작품을 마주한 기분은 정말 기쁘다. 4 년의 시간을 기울인 결과물을 마주하니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본격적인 제작 과정만 1 년 넘게 걸렸다. 정원이나 공원에서 야외 설치미술 작업을 여러 번 해봤지만, 물이 뿜어져 나오는 작품은 처음이었다. 물과 끊임없이 접촉해야 하니 그만큼 까다로웠던 게 사실이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지금 이 모습을 보니 힘들었던 기억이 전부 사라지는 듯하다.

바로크 시대의 댄스 음악에서 작품의 영감을 얻었다고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조각이나 브론즈 작품들은 모두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대부분 이곳의 주인이었던 왕들과 관련돼 있다. 루이 14 세의 힘과 업적을 상징하는 흔적은 베르사유 궁전 도처에 있다. 그가 아직 이곳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루이 14 세의 자취를 조사하던 중, 화단과 정원 바닥에 있는 장식적인 패턴이 왕이 댄스 스텝을 익히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 이는 무용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료라고 하더라.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 '물 위에서 춤추는 왕'을 표현하고자 했다. 조경사 루이스 베네시가 디자인한 분수 또한 연극 무대에서 영감을 받았다 하니, 정말 완벽한 조화가 아닌가.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전설 속 동물의 형상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하, 그랬나? 바로크 음악에도 그로테스크한 면이 있으니까. 작업할 때 항상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걸 좋아한다.

작품이 수면 위에 낮게 자리하고 있는데, 높이 제약이라도 있었나 분수에서 물이 뿜어져 나올 때면 7m 가 넘는다. 앞서 말했듯 왕이 춤추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기에 실제 사람의 키와 비슷한 높이를 고려했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30 평이 넘는 면적을 차지하는 패스케일이 큰 작업이다.

아이디어를 현실로 옮기는 작업 과정은 수월했나 오, 결코 쉽지 않았다. 이런 종류의 작업은 미적인 부분뿐 아니라 과학적, 수학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많다 보니 어느 때는 건축물을 짓는 것처럼 느껴진다.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건축가, 엔지니어들과 함께 작업하는데, 과정이 복잡하긴 하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작업이었다. 특히 이번 설치미술 작품은 베르사유 궁전에 영구적으로 남기 때문에 재료 선택에도 신중을 기했다. 분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와의 조화도 신경 써야 했다. 그러면서도 너무 튀지 않는 겸손한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

금빛 구슬 사이에 크기와 모양이 다른, 블루 컬러 구슬이 눈에 띈다 과거 분수가 있던 자리에서 조각상의 일부로 추정되는 네 개의 파란 돌이 발견됐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블루 컬러의 유리 구슬을 따로 제작했다. 루이 14 세가 살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연결 고리라고 할까.

과거와 현재의 연결 고리라니, 동양적인 세계관처럼 들린다 그럴지도 모른다. 현재의 작업을 통해 과거를 덮어버리는 아티스트들이 많은데, 나는 과거와의 연결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전시를 위해 여러 번 방문했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내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 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 아주 매운 요리만 빼고 한국 음식도 잘 먹는다. 내년 봄에 국제갤러리에서 전시를 계획하고 있어서 곧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라 신난다.

editor 김아름

photo Diane Arques

writer 김이지은

design 최인아

URL: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8023980&ctg=2424